

## 중국경제특구 발전요인 및 특구 운영방식 조사

- 이상호 연구위원(동향분석실)

### 1. 출장개요

- 출장자 : 이상호 연구위원(동향분석실)
- 출장기간 : 2012.09.16 ~ 09.21(5박 6일)
- 출장지역 : 중국, 홍콩
- 출장목적 : 중국경제특구 발전요인 및 특구 운영방식 조사
- 출장일정

날짜	요일	시간	세부일정
9월 16일	일	11:00	인천국제공항 도착
		11:30~12:25	이동(인천 출발 - 푸둥 공항 도착)
		13:00~14:00	숙소 도착(살보 Hotel)
		14:00~18:00	현지 시찰
		18:00	지경부 만찬회(상해주재 김완기 상무관외)
9월 17일	월	09:00~11:00	숙소 출발-쑤조우 공업원구 도착
		11:00~12:00	쑤조우 공업원구 시찰
		12:00~14:00	오찬(쑤조우 공업원구 관계자외)
		14:00~16:00	쑤조우 공업원구 김연옥 부처장 미팅
		16:00~18:00	숙소 도착

9월 18일	화	09:00~12:00	푸둥 국제교류센터 방문, 장강 하이테크 파크 시찰
		14:00~15:00	상해international sourcing center base 담당자 면담
		15:00~16:00	숙소 도착 및 휴식
		18:00	만찬(SK케미컬지사장 외)
9월 19일	수	07:00~08:30	이동(숙소출발, 홍차오 공항 도착)
		09:50~12:40	홍차오 공항 출발-마카오 공항 도착
		13:00	숙소 도착
		14:00~18:00	카지노 지역 시찰
9월 20일	목	09:00~10:00	이동(숙소출발, 마카오 페리항구)
		10:30~11:30	마카오 페리항구 출발-홍콩 항구 도착
		13:00	숙소도착 및 휴식
		17:00~19:00	외투기업 관계자 면담
9월 21일	금	09:00~11:00	조찬회(홍콩주재 코트라 담당직원, 홍콩주재 상무관 외)
		12:00~13:00	숙소출발, 홍콩 공항 도착
		14:05~18:40	이동(홍콩 공항 출발 - 인천 공항 도착)
		19:00	인천국제공항 도착

## 2. 소주 공업원구관리위원회 방문(9월 17일)

### (1) 방문지역 소개

- 소주공업원구는 1992년,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싱가포르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(鄧小平)한 이후에 1994년 2월에 중국-싱가포르 양국 정부가 소주시 동측에 현대적인 산업단지를 공동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개발
  - 중국 측은 부지를 제공하고, 싱가포르 측은 개발프로젝트 기획 및 자본 투자 실시(중국 유일의 국제간 정부합작 개발구)
- 지리적 위치는 상해시에서 80km, 1시간 거리에 위치
- 중국·싱가포르 중앙정부 연합체인 연합협조이사회에서 정책적 사항을 결정
  - 한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해당하는 곳으로 중국 부총리와 싱가포르 총리가 공동의장, 구성원은 양측 관계부처 장·차관 및 강소성·

소주시 정부로 구성됨.

- 매년 1회 회의 개최, 주요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진행함.
- 소주공업원구관리위원회(SIPAC : Suzhou Industrial Park Administrative Committee)가 일상적·실무적 관리를 수행
  - 한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하는 곳으로 중국 국무원과 강소성 정부에서 설립, 소주시 정부에서 인력을 파견
  - 투자자를 위한 기업설립, 공장건설, 직원채용, 기업운영과 관련된 행정관리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
- 중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설립한 중-싱 소주공업원구개발유한공사(CSSD : China-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., Ltd)가 개발, 분양, 외국인투자 등을 담당
  - 한국의 경우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업초기 싱가포르 측의 주도로 개발계획, 도시설계, 외자유치 등을 주관했으나 2001년 출자지분 구조변화와 함께 중국 측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, 싱가포르 측은 도시설계에 따른 건설관리자문기능만 수행
- 소주공업지구의 투자환경의 특징중 하나는 중국 지방정부중 유일하게 외국인투자 심사비준시 최고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임.
-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즉, 공업원구관리위원회(SIPAC)에 한도제한이 없는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권한, 출입국 관련 업무수행 권한 등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
  - 중앙정부 기능의 직접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모든 인허가 관련 부처 사무실을 공업원구 내에 설치하여 기업 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화 지향
- 세제혜택은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15%가 내국기업과 동일한 25% 체제로 전환되어 국내외 기업의 세제혜택 차별이 거의 없어진 상황

## (2) 방문 및 면담 결과

- 투자유치 담당인 김연옥, 김명철 부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주공업원구

## 성공요인에 대한 의견 교환

- 김연옥 부처장은 공업원구내 외투·내국기업간 차별 없으며 벤처 및 첨단 기업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전 및 사업성을 판별한 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설명
- 소주공업원구는 기존 중저위기술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이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.
  -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질적 수준이 높고 풍부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대단위 교육시설을 개발중에 있음.
  - 더불어 금융업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금융업 관련 지역적 한계를 고려, 입주기업 지원금융에 특화하여 세계적 금융중심지인 상하이와 차별화 전략 시도(IMF 기준상 지역금융센터보다 낮은 단계의 금융기능을 담당할 도시를 지향)
- 한국 6개 경제자유구역 역시 모두 세계적인 허브가 되려하기보다는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성 및 지역 역량을 최대한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
- 입주기업들은 경제적 환경에 따라 바뀌는데, 최근에는 중국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내수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과 생산체인을 구축하고 있음.
- 최근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외주기업에 대한 차별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심사비준과 출입국 관련 업무수행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의를 크게 확대하려 하고 있음.

### (3) 시사점

- 소주공업원구의 성공적인 개발은 중국 부총리와 싱가포르 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산업단지·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됨.
- 특히, 단순한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고, 싱가포르 측과 협력하여 생산, 주거, 상업, 레저 등이 복합된 현대화된 신도시 건설
- 무엇보다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점진적인 지구 개발과

정이 인상적

- 소주공업원구는 현재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. 이는 2008년 이후 중앙정부에 의한 지시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해 각종 행정비용을 없애려는 노력으로 인센티브를 보전하려 함.
  - 현재 산업단지와 지역산업정책과의 비교선상에 혜택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큼.
- 소주공업원구는 현재 하이테크 산업, 연구개발,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, 기존의 기업들이 생산항목을 상기 목적에 부합하게 전환시키려 할 때 세제지원을 하는 등 기존 기업이나 산업구조에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.
- 이러한 변화의 근거에는 기존 외자 입주기업들이 중국내 노동비용의 상승에 대비하고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가운데, 내수에 걸맞은 기술수준 발전 등 변화유인이 존재
- 이러한 변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급을 위한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단지를 조성중에 있음.
- 전반적으로 전체 원구개발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구조변화를 꾀하려는 인상이 깊음. 예를 들어 금융의 경우도 현재는 소비자 금융보다는 기업금융에 초점을 두고 있음.
- 이에 반해 한국 인천의 경우 소주 공업원구보다는 고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.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는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이고, 현재 소주공업원구내에서는 인력수급이 어려운 산업으로 향후 소주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평가함.
- 내자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을 진행중에 있으며,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공함에 있어 성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외자 및 내자 등 퇴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디스 인센티브제도가 존재함.

## 2. 푸둥신구 국제교류센터, 상해 International Sourcing Center Base 방문(9월 18일)

### (1) 방문지역 및 기관 소개

#### [푸둥신구]

- 푸둥신구는 1980년대 계획경제 요소가 집중된 전통공업도시였으나, 1990년대 들어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된 가운데 1990년 푸둥개발을 승인한 이후 1993년, 상해시 푸둥신구관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푸둥개발에 착수되면서 발전 계기를 마련
  - 특히, 1992년 하나의 용머리와 3개 중심전략을 통해 푸둥신구를 개혁개방의 용머리, 상해를 국제경제와 금융, 무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푸둥을 포함한 상해를 중국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이 제시
- 이후 다양한 개발구 지정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의 집적효과를 제

고하는 정책을 추진

- 1990년대 포동지역에 육가취금융무역구, 금교수출가공구, 외고교보세구, 장강침단기술구 등을 조성
- 2003년말까지 상해시는 국가급 개발구 5개, 시급 개발구 13개, 다양한 구(區)·현(縣)급 개발구 등을 조성,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
-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상해를 국제적인 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
  - 2002년에 외국자본의 상해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범위를 확대하고,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기업합병 등을 수월하게 하는 조치를 단행하고,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하는 특혜정책을 시행함.
- 5대 부문 거점 마련을 위한 정책을 시행중(① 금융기구 집적, 금융혁신 활발, 세계를 향한 금융서비스 제공, ② 국제적·현대적 중추기능을 갖춘 현대물류거점, ③ 다국적기업 투자센터, 구매센터 등 다국적 경영 거점, ④ 국제회의 및 전시회, 국제관광 거점, ⑤ 국제무역기구 집적, 국제상품 집결지로서의 국제무역 거점)
  - 향후 5~10년 간 외자유치 업무는 마이크로 전자, 자동차, 생명의학, 신재료 등 첨단제조업에 중점을 둘 계획

### [장강 하이테크개발구]

- 장강 하이테크개발구는 포동신구의 중부에 위치, 계획면적 25km<sup>2</sup>, 개발면적 10km<sup>2</sup>이며, 국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여, 마이크로 전자, 컴퓨터 소프트웨어, 통신설비, 신소재 등 첨단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음.
- 중국 국무원 기전부가 통신 분야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모토롤라, 스위스 호프만제약 로쓰제약, 미쓰시다, SKB 등 주로 통신 및 제약업체가 진출
  - 대규모 부지(25km<sup>2</sup>)내 다국적 기업과 중국의 대기업 등 약 5천여개의

기업이 입주해 있으며, 첨단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는 곳

-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, 문화산업과 문화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.
  - 장강 하이테크개발구에는 100여 개 첨단기술 창업기업과 50여개 연구개발 기구 등이 밀집되어 있고, 점증하는 아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애니메이션, 온라인 게임, 전자출판 등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
- 현재는 외국기업의 유치에 주력하고 있지만, 장기적으로 중국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
- 장강 하이테크 개발구내 기업들은 경제특구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.
  - 연구개발기구가 공장설립할 경우 2~3년간 조세감면 혜택, 정보산업, 신소재산업 등 신성장, 고도화된 산업에 대해서는 2년동안 창출 부가가치의 4%, 이윤총액의 14% 만큼 현금 재정보조를 지원

## (2) 시사점

- 중국 정부는 푸둥신구 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비즈니스 비용 상승을 저부가가치 산업의 퇴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.
  - 특히 금융, 현대물류, 정보서비스, 비즈니스무역, 전시회 등 현대서비스업 및 창조적 지식응용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둘 계획
- 푸둥신구의 발전 방향은 향후 한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 발전방향과 많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적 발전전략이 불가피할 전망
- 무엇보다 금융, 물류, 관광 등 서비스업종과 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지역 차별화와 더불어 역내 차별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
- 푸둥신구는 특정지역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시작된 지역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발전단계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

- 장강하이테크개발구내 입지기업들은 한국 경제자유구역내 입주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유사분야에 속한 기업들로 장강 하이테크 개발구내 집적경제성을 상충시킬만한 입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며, 필요에 따라서는 장강하이테크개발구의 기존 경쟁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
- 상해 International Sourcing Center Base는 코트라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, 더불어 상해시 투자유치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음.
  -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푸둥신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항은 푸둥신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
  - 차후 시의 발전방향과 개발지구 발전방향간의 연계성 및 지배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### 3. 마카오 방문(9월 19일)

#### (1) 방문지역 소개

- 2001년, 카지노 산업을 개방한 이후 마카오는 세계 최대의 유흥산업 지역으로 변화하였으며, 2006년에는 유흥산업 매출이 라스베거스를 능가함.
  - 게임 관련 세금은 총 정부 수입의 70 %를 차지
- 2008년 마카오는 유흥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제약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,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유흥산업이 위축되기도 하였지만, 중국 본토로부터의 관광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 성장이 제고됨.
- 2009년 마카오의 1인당 GDP는 3만9000달러에 근접하고, 2010년에는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
  - 국민소득의 대부분은 관광 및 유흥 산업의 수익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

- 향후 마카오 경제의 중기 전망에 따르면 중국이나 홍콩과의 긴밀한 연관성이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
  - 중국과의 경제협력 협정은 2016년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두 국가 간의 관광객 유출입이 확대될 전망

## (2) 시사점

- 마카오는 경제전체가 유흥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창출된 소득이 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내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 단점임.
  - 구조적으로는 유흥산업이 글로벌 경기변동에 취약하며, 인근 지역경제의 경기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음.
- 향후 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경우 연관 산업이외에 지역내 산업의 발전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.
- 더불어 유흥 산업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, 사회적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

## 4. 홍콩내 외자기업 관계자 면담(9월 20일)

### (1) 인터뷰 대상자

- Raymond Ng(FIFIELD Inc., Director - Asia Operations)

### (2) 면담 내용

- FIFIELD사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Raymond는 홍콩의 투자환경은 지리적, 문화적, 경제적 여건 등 종합적 측면에서 모두 우월하다고 강조함.
  - 홍콩의 높은 개방성과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(16.5%) 등을 고려하여 미국 본사는 아시아지역 진출의 거점으로 홍콩을 선정
- 특히, 영국식 법체계가 지배하고 있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질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체제적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, 사회적 문화적 체제에 대한 거부반응도 거의 없는 상황

- 지리적으로는 서유럽으로부터 4시간, 동아시아권에 2~3시간 비행시간을 두고 있어 두경제권간 연결선상에 있는 것도 큰 장점중 하나임.
- 밀도 높은 도시개발로 인해 사업자간 일대일 면담이 30분 거리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사업자가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이 장점
- 교육여건도 훌륭하여 꾸준한 인재양성을 통해 인력공급을 유지

### (3) 시사점

-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특화하고자 하는 분야 및 산업에 대한 꾸준한 인력공급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존 산업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
- 더불어 외자기업내 종사자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지원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더불어 법적, 사회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.
- 지역별 특화전략에 있어 역내 특화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, 현실성있고 실용적인 접근 및 전략이 요구됨.
- 한국은 영미국가 식민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어면에서 불리하지만 지정학적 위치 고려시 동북아 중심지로서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의견표명